

네트워크회의  
인권활동가네트워크워크숍

# 한국 내 무슬림의 성공적인 사회통합

## - 몇 가지 고찰

파라 셰이크  
[계명대학교 조교수]

1. 최근 한국에서 무슬림 지역사회가 새롭게 부상하며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무슬림 지역사회는 장/단기 이주민, 난민, 유학생, 사업가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한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이질적이거나 한국 사회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2.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이다. 이슬람을 “외국인”으로만 바라보며, 이는 종종 이슬람 혐오 및 인종차별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무슬림에 대한 사회적 배제라는 결과로 이어져, 한국인 무슬림들조차 사회로부터 배척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요컨대, 부정적인 결과가 사회적 조화를 해치고, 분열과 타인에 대한 혐오를 낳게 된다.

3. 사회 조화에 대한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있다. 특히, 대구에서 무슬림 학생들의 모스크 건립을 위한 투쟁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이 바로 그것이다.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반 무슬림 시위대가 무슬림 건설 현장의 좁은 길에 차를 주차해 놓거나 길을 막으면서 공사 현장에 작업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시위대들은 소위 소규모 테러 행위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모스크 전면 또는 모스크와 가까운 곳에 피가 떨어지는 돼지 머리를 두기도 하고 있으며, 모스크 주변거리의 건물에 배너를 설치해 불쾌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또한, 집주인들에게 무슬림 학생 세입자들을 쫓아내라고 독려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법의 문제가 아니라 무슬림 학생과 대구 시민 간의 관계를 훼손하는 기본적 인권, 사회적 규범에 대한 침해의 문제가 되었다.

4. 나는 무슬림 여성으로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세금을 내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한국에서 거의 6년을 살면서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나에게서 영원한 고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경험들을 종종 하곤 한다. 무슬림이 아닌 한국인으로부터 나의 스타일과 외모 때문에 “불성한” 무슬림이라는 꾸짖음을 듣기도 했고, 여성을 해치는 “야만적인” 종교를 따른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가장 최악의 경험은 남아있는 무슬림들은 지각이 없다는 말을 들은 것이었다.

5. 그래서, 문제는 활동가들이 어떻게 한국의 무슬림 지역사회를 지원하여 번영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될 것이다. 활동가들이 무슬림이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활동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분명한 답,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다음의 몇 가지 실질적인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한국에서 할랄 육류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때문에, 활동가들이 직장, 학교, 군대 및 공공장소와 같은 곳에서 한국 채식 메뉴의 활용 가능성을 더욱 폭넓게 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다.

(2) 한국 사회에서 무슬림과 비 무슬림이 서로 만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두 그룹 간 절실히 필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3) 이슬람 및 무슬림과 관계된 기사를 다룰 때, 반 선정적 보도 및 공정보도에 관한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전 세계 비 무슬림의 인식에 자리 잡은 무슬림과 테러행위 간 연관성을 끊을 수 있도록 한다.

(4) 대중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예: 이슬람 문화의 날,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시민을 위한 쉬운 강의) 등이 도움이 될 것이다.